햇것 출하 앞둔 국산약재 전반적 약보합세

당귀값 바닥세, 길경 진피 오가피 등은 물량 귀

구기자 햇구기자 출하량이 예년비 다소 감소. 출하 초기에 청양 장사군들이 시세를 근당(6백g기준) 4천5백~5천원 선까지 내려놓는 바람에 농가에서 구기자 관리를 소홀히 한데다 수해 영향으로 작황도 그리 좋지 못한 까닭이다. 출하물량 감소로 시세는 9월말 현재 경동약령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근당(6백g기준) 도매시세는 지난 8월말 거래되던 6천5백원 시세보다 다소 오른 7천5백원(청양산 햇것). 아직 햇것출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진도산 묵은 상품은 근당 8천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 그러나 매매는 부진한 상황. 국산과 거의 유사한 품질의 수입산은 근당 3천원선에 거래되고 있다.

길경 햇것 출하시기 임에도 물량이 귀하다. 1관에 4천~4천5백원 선에 거래되던 생도라지 값이 7천원 선에도 물량 구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높게 형성됨에 따라 약재용 길경 출하량이 거의 드문 실정. 9월말 현재 경동약령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근당(6백g기준) 도매시세는 통자가 2만5천원, 절길경은 근당 8천5백원 선이다.

당귀 시세가 바닥세로 떨어졌다. 올 초부터 지속적인 하락세 경향을 보이던 토당귀 시세가 9월말 현재는 2천7백원(통), 3천5백원(절) 선까지 폭락했다. 지난해 당귀 재배면적이 예년대비 30% 포인트 증가한데다 지난해 묵은 재고량도 상당하고 올 작황도 풍작인 것. 토당귀 절자가 산지에서는 근당 2천5백원 선에 거래되고 있으나 2천원 선까지 빠질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지난 8월말 근당 3천원선에 거래되던 일당귀 시세도 9월말 현재 2천5백원 선으로 빠졌다.

맥문동 약보합세. 9월말 현재 경동약령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맥문동 근당(6백g기준) 도매시세는 청양산 거심 맥문동이 9천원(대), 6천5백원(중) 선으로 다소 하락세. 막맥은 근당 5천3백원 선으로 보합세 이루고 있다. 밀양산 맥문동은 9천5백원(대), 8천5백원(중) 선에 거래되고 있다. 근당 1천6백~2천2백원 선에 거래되는 수입산 맥문동 영향으로 국산 맥문동 매매는 부진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당분간 약보합세 지속될 전망.

작약 햇것 출하가 조금씩 시작되고 있는 요즘이지만 상품을 구하기는 쉽지 않다. 생산량이 그리 많지 않은 관계로 예년 수확기에 비해 시세는 큰 하락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특징. 9월말 현재 경동약령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작약 근당(6백g기준) 도매시세는 7천원(중품), 5천원(하품) 선이며 상품은 물량 구하기가 쉽지 않다. 당분간 보합세 전망된다. 수입 작약은 근당 1천~2천원 선이다.

산수유 내림세 보이고 있다. 올 산수유 작황은 그런대로 좋은 편. 햇것 출하기 앞두고 묵은 재고 물량이 싼값에 시중 유통되면서 산수유 시세가 전반적인 약보합세 경향을 띄고 있는 것. 9월말 현재 경동약령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산수유 근당(6백g기준) 도매시세는 상품이 8천5백원, 중품이 7천5백원 선으로 지난 8월말 시세인 9천원(상품), 8천5백원(중품) 선보다 다소 하락했다. 11월 중순경부터 본격화될 햇것 출하와 함께 시세도 당분간 약보합세 보일 전망이다. 수입산 산수유 시세는 근당 5천원 선.

오가피 언론매체를 통한 광고 영향으로 오가피 열풍은 계속되고 있는 듯. 약재시장에서 오가피는 없어서 못 팔 정도로 귀하신 몸이 된지 이미 오래다. 지금도 경동약령시장 약전골목들에서는 생 오가피 나무를 통채로 베어다 놓고 즉석에서 절단 판매하는 장면을 쉽게 볼 수 있다. 오가피 수요량이 급증한 관계로 오가피와 비슷한 두릅나무 껍데기까지 베어다 오가피로 판매되고 있는 상황. 진오가피는 물량 구하기가 어려울 만큼 귀하고 가오가피라고도 하는 막오가피도 근당(6백g기준) 5천원 선으로 상보합세 유지하고 있다. 오갈목 나무토막으로도 유통되는데 한묶음에 1천8백원 선이다.

진피 품귀. 근당(6백g기준) 1천원에도 물량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 제주도가 주산지인 진피의 그동안 근당 평균시세는 7~8천원 선. 그러나 2~3년 전부터 수입 진피가 근당 5~6백원 선에 시중 유통되자 이를 막기 위해 지난해부터 국산 진피 가격을 근당 4백50원 선으로 원가 이하 조정함으로서 올 진피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하게 된 때문이다. 9월말 현재 경동약령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국산 진피 근당 도매시세는 1천원 선이나 물량은 귀하다. 한편 수입 진피는 근당 5백원 선.

천궁 9월말 현재 경동약령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일천궁 근당(6백g기준) 도매시세는 3천5백원(절)선으로 보합세. 토천궁은 1만4천5백원 선으로 지난 8월말 시세인 1만5천원보다 다소 빠진 시세에 거래되고 있다. 햇것 출하기 앞두고 재고 물량도 적지 않은 상황이지만 시세는 큰 하락세를 눈치 챌 수 없는 상황. 일천궁 산지 시세는 근당 3천3백원 선이라고. 수입산 천궁 시세는 근당 1천원 선이다. 햇것 출하가 본격화되는 다음달부터는 시세 다소 빠질 듯.

〈문정희〉

중국약재 시장동향

추분 절기가 지나고 선선한 가을날이 시작되면서 약재 장사도 한층 활기를 띄고 있다. 약재시장의 거래 물량도 많아지고 생산원가 이하로 떨어졌던 품목들 시세가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듯 싶지만 햇것 수확시기를 앞두고 전반적인 약재시세가 하락세 내지는 약보합세 경향이 강하다. 중국내 현지 소비량 감소는 물론이고 우리나라를 포함 동남아 등지로 수출량이 대폭 감소한 때문이다.

패모 폭등세 여전

ㅇ…지난 3년간 kg당 2.6위안(한화 1,100원) 정도에 거래되던 천궁이 9월말 현재 3.3~3.4위안(한화 1,400~1,500원)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매매도 비교적 활발한 편이고 창고에 물량도 많아 큰 시세폭등은 없을 것이라고. 햇것 출하기까지는 아직도 약 3개월 가량 남은 일천궁도 9월말 현재 kg당 5.5위안(한화 2,400원)으로 상보합세. 사천성이 주산지인 일천궁은 1년에 두 번(5월, 12월) 수확된다. 한편 kg당 120위안(한화 48,000원) 선이던 패모도 산지 사람들의 장난에 의해 9월말 현재는 145~150위안(한화 58,000~60,000원)까지 폭등세를 형성하고 있다.

감초값 지난해비 절반 수준

ㅇ…야생 감초는 중국정부의 관리 감독으로 생산량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신강, 영하, 내몽고, 감숙, 동북지역 등에서 많은 양이 재배되고 있는 관계로 중국 현지 감초 시세는 지난해 절반수준으로 값이 떨어졌단다. 형개도 생산시기라 보통품이 kg당 2.5위안(한화 1,100원)에서 1.2위안(한화 500원)으로 시세 빠지고 형개수도 12위안(한화 5,400원)에서 6위안(한화 2,700원)으로 폭락.

야생약초 생산량 급감

ㅇ…한창 수확기를 맞고 있는 북방의 야생약재는 그러나 중국정부의 채취통제로 운반과정에서도 중간중간 조사를 하기 때문에 생산량이 급감할 것이란 분석. 북방의 야생약재 종류에는 야생시호, 관방풍, 야생황금, 창출, 위령선, 승마, 진범 등이며 이들 약재의 시세 상승은 의심할 여지가 없을 듯.

북오미자 매매 활발

ㅇ…중국 약재시장에서 9월말 현재 북오미자 시세는 kg당 30~32위안(한화 12,000~12,800원)으로 산지에서 매매가 활발하다. 향후 한국에서의 요구 수량에 따라 중국 산지가격도 변화할 예정. 그러나 본격적인 햇것 출하가 시작되면 시세도 지금보다는 다소 떨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서오미자 시세는 kg당 14.5~ 15.5위안(한화 5,800~6,200원) 선이다.

절강산 산수유 생산량 감소

ㅇ…중국 산수유는 절강, 하남, 섬서 지역에서 주로 생산되는데 제일 품질이 좋은 절강산은 올 생산량이 예년에 비해 많이 감소한 반면 다른 지역의 경우는 평년작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큰 시세변동은 없을 것이란 분석. 9월말 현재 산수유 시세는 kg당 30위안(한화 12,000원)으로 보합세다.

감인 연자육 수량 감소

ㅇ…감인, 연자육은 지난 여름 수해 영향으로 수량이 대폭 감소. 시세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kg당 8위안(한화 3,200원) 선이던 감인은 10위안(한화 4,000원)으로, 6.5위안(한화 2,600원)의 연자육은 8위안(한화 3,200원)으로 각각 오른시세에 9월말 현재 거래되고 있다. 연자육은 중국에서 약용뿐 아니라 식용으로도 소비가 많다고. 중국에서 식음료 개발 원료로 많이 소비되고 있는 산사육도 금년 생산수량이 적어 상승세 점쳐지고 있다. 9월말 현재 산사육 시세는 kg당 3위안(한화 1,200원) 선.

백작약 다소 오름세

ㅇ…백작약은 kg당 3위안(한화 1,200원)까지 시세가 떨어지면서 농민들이 출하작업을 기피한 영향으로 최근 들어 다소 오름세. 9월말 현재 백작약 시세는 kg당 3.6~4위안(한화 1,400원~1,600원)선이다. 9.5위안(한화3,800원) 선이던 목단피는 9월말 현재 6.5위안(한화 2,600원)으로 내림세 보이고 있으며 두충도 다소 내려 kg당 5위안(한화 2,000원)에 거래되고 있다.